



2019년도 대비 2022학년도 모집인원

체육특기자 정원 감소, 진통 겪는 ‘체육대학’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축구부 모집인원 감소
자학내 대회는 참가도 불가

우리학교 축구부는 올해 국가대표에 선발된 정우영, 고승범, 강상우, 김진수 등을 배출한 축구 명문이다. 2002년 월드컵 멤버인 이운재, 현 K리그1의 감독인 남기일, 박건하 등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 같은 선수들도 우리학교 축구부 출신이다. 또한 대학축구 U리그의 조대 우승팀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축구부는 더 이상 축구 명문의 계보를 이어 나가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학 축구팀은 완전한 전력을 구축하기 힘든 구조다. 재학 도중 프로로 진출하는 선수들과 축구를 그만두는 선수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신입생 모집을 통해 두꺼운 선수층을 구성하는 것만이 대학 축구팀이 한 시즌을 온전히 치를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학교 축구부는 선수 부족으로 인해 이번 시즌 치러지는 1, 2학년 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명 명단 자체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축구부 김광

진 감독은 “현재 인원이 부족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적은 정원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누군가 그만두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감독은 “전주대와 같은 지방대의 경우 인원이 60명이 넘는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3명은 돼야 축구팀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축구부 주장 오영빈(스포츠지도학 2020) 선수는 “대회를 나가게 되면 이를 단위로 경기가 연속적으로 있다.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부상자가 나오거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훈련을 할 때 선수 구성이 맞지 않아 힘든 부분이 있다”며 “선수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기도 하고 부상자가 생길 수록 팀이 힘들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원 부족 문제는 선수들의 프로 진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쉽게 팀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축구부 김상훈(스포츠지도학 2019) 선수는 “아무래도 팀의 사정을 알다 보니까 프로 도전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 “현재 정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한 선

수 한 선수가 너무 소중하다”며 “다른 팀과 비교해 선수도 많이 부족하고, 부상도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축구부의 상황은 타 대학 선수들도 알고 있을 만큼 심각했다. 익명을 요구한 성균관대 축구부 A 씨는 “수도권 팀들 중에서도 특히 경희대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들었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인원 부족 문제는 축구팀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다. 부상자라도 생기면 경기에 참여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수시모집 실기우수자 축구 전형에서 12명, 2019학년도에는 11명의 선수를 선발했다. 그러나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7명의 선수를, 2021학년도 모집에서는 6명의 선수만을 선발하는 등 모집인원이 크게 감소했다. 2022학년도에는 모집인원이 8명으로 증가했으나, 2019학년도 이전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치였다.

2022학년도 우리학교 축구부는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에리카)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 ▲아주대 ▲광운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은 인원을 모집했다. 2022학년

도 신입생 모집에서 성균관대가 7명을 뽑아 가장 적은 인원을 선발했다. 이어 우리학교가 8명을 모집했고 연세대, 한양대(에리카), 단국대, 광운대는 9명, 고려대, 아주대는 10명, 중앙대는 11명을 모집했다.

우리학교 축구부는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4년간 32명의 선수를 선발했다. 그러나 김 감독에 따르면 이번 시즌 전체정원은 22명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명의 선수가 프로 진출 등의 이유로 축구부를 이탈한 것이다. 11명 이상이 출전하는 경기를 한 시즌 동안 치러야 하는 축구팀의 입장에서 22명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팀에 부상자가 여럿이 생기면 한 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할 상황에도 놓일 수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K리그1의 팀당 등록선수는 평균 35명이다. 심지어 고등학교, 중학교 축구부의 팀당 등록선수의 평균도 30명을 웃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학교 축구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작년 우리학교 축구부의 U리그 참가 인원은 올 시즌 같은 권역에 속한 주요 학교 중에서도 가장 적었다. 작년 기준 우리학교 U리그 참가인원은 24명이었지만, 광운대, 아주대는 28명, 명지대는 32명, 단

국대는 33명의 선수가 U리그에 참가했다. 이는 지방대학과 비교할 때 더욱 심각한 수치다. U리그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대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하여 참가인원수가 훨씬 많으며 60명 상당의 선수가 참가한 대학도 있었다”고 말했다.

체육특기자 전체정원 감소
2019학년도 이후 20명 이상 감소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모집인원이 감소한 종목은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었다. 농구부는 2019학년도에 9명을 선발했고 2022학년도에는 6명을 선발했다. 이와 동시에 야구부는 10명에서 7명, 배구부는 7명에서 5명, 핸드볼부는 8명에서 5명, 럭비부는 10명에서 7명으로 선발인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전형의 전체 모집인원 역시 123명에서 94명으로 감소했다.

우리학교 체육부는 체육특기자 입학정원 감소를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체육부 관계자는 “체육부로 어떠한 지침이 문서화해서 내려오진 않았지만, 교역에 속한 주요 학교 중에서도 가장 적었다. 작년 기준 우리학교 U리그 참가인원은 24명이었지만, 광운대, 아주대는 28명, 명지대는 32명, 단



체육대학 전경

(사진=대학주보DB)

명 정도 선발인원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신문의 취재결과,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보도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부 대입정책과 관계자는 “체육특기자 감소와 관련한 지침은 따로 없었다”며 “2016년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관련 종합대책이 발표되긴 했지만 비리 근절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인 내용일 뿐,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모집인원을 축소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체육부 관계자는 “체육부로 어떠한 지침이 문서화돼서 내려온 적은 없지만, 입학처와 얘기했을 때 교육부 지침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제캠퍼스 입학처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적은 없다”며 “체육특기자 인원감소는 우리학교 체육위원회의 결정일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체육특기자 입학정원 감소가 교육부 지침의 결과라는 체육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학교를 포함한 서울권 주요 대학들의 입학정원은 모두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권 주요 대학 중에서 체육특기자 모집인원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곳은 우리학교밖에 없었다. 2019학년도와 2022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인원을 비교했을 때, 고려대와 성균관대는 해당

전형의 모집인원이 오히려 상승했고 중앙대와 건국대는 변화가 없었다. 연세대는 모집인원이 2명 감소했다. 이는 우리학교 모집인원이 29명 감소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였다.

이에 대해 체육부 관계자는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우, 자기 대학의 이익을 위해 입학정원에 큰 변

화를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체육특기자 입학정원은 그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송중국 체육대학 학장
“인원감소는 시대적 흐름”
성균관대도 구조조정 경험해

체육대학 송중국 학장은 “대학 사회 전반에서 체육부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는 체육부의 조정이 있었고, 인원감소가 아니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종목의 폐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성균관대는 체육 종목 구조조정을 실행한 바 있다. ‘성균관대 스포츠탄’에서 진행한 해당 정책은 성균관대의 5개 단체 구기 종목 중 하위 2개 종목을 정리하고 3개 단체 구기 종목에 예산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성균관대 핸드볼부는 해체됐고 농구부는 존재위기를 겪기도 했다.

2013년 한양대의 운동부 폐지 논란 역시 당시 체육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당시 한양대는 재정난을 이유로 체조, 육상, 유도부 한 변화가 있는 곳은 우리학교밖에 없었다. 2019학년도와 2022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인원을 비교했을 때, 많은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체육부 예산을 감소하며 대학 체육계의 저변이 축소되는 흐름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학교 체육특기자 전형의 인원감소 역시 ▲체육부 운영을 위한 재원 부족 ▲프로 진출 후 자퇴로 인한 결원 등 교내외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맞물린 결과

▶1면 ‘우리학교 학생회 횡령논란 힘싸이’에서 이어짐

호관대 횡령 사건이 채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대에서도 또 다른 횡령이 발생했다. 전 피아노과 학생회장이 학생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올해 음악대학(음대) 학생회는 학생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학생회 명의의 공용 통장을 개설했다. 각 학과 학생회장은 학생회비를 관리하던 전 학생회장들에게 공용 계좌로 학생회비를 입금할 것을 요청했고, 이후 개설된 통장에는 피아노과를 제외한 관현악과, 성악과, 작곡과 학생회비가 입금됐다.

이에 현 피아노과 학생회장은 전 학생회장인 A 씨에게 총 4차례에 걸쳐 학생회비 송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계좌 비밀번호 분실, 카드 분실, 통장 비밀번호 분실 등을 이같이 빠져있다. 체육부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체육대학 전체의 증진을 위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송 학장은 “이러한 현상은 대학 스포츠의 맹점”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모든 종목이 딜레마에 빠져있다. 체육부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체육대학 전체의 증진을 위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송 학장의 말대로 우리학교 체육부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우선, 우리학교를 포함한 서울권 주요 대학의 경우 메이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지방대학의 지원 미달과 관련이 있다. 지원 미달이 속출하는 지방대학의 경우, 미달 학과의 정원을 통해 기존 체육특기자 모집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 이에 지방대학은 서울권 대학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선수층과 함께 최상의 전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우수한 선수들을 선발하는 주요 대학보다 더욱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진다.

또한, 현재 신인 드래프트 구조에서 대학 스포츠는 주목받기 힘든 시스템이다. 우수한 선수들은 프로로 직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학부를 졸업하지 않고 프로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 학부를 졸업 후, 프로에 진출하여 학교의 위상을 높이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으며 대학 스포츠 인기 역시 과거와 비교해 매우 미약하다.

이에 대해 송 학장은 “여러 진통을 겪고 있지만, 체육대학의 전체적인 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설계 중이다”라며 “우리 스스로가 발전하려면 진통을 감내해야 하고, 그 진통은 분담해야만 하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횡령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회피하고자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공문화 후 학생회비 나머지 금액 200만 원을 송금했다.

감사 TF는 이번 횡령을 재정 운영 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작년 12월 26일 2021학년도 2학기 피아노과 학생회비 결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21일자로 결산을 마친 것이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22일부터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현 학생회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것임을 진술했다. 횡령을 한 22일부터 이월 전까지의 공백을 현 학생회장이 증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감사 TF는 이번 감사를 통해 ▲피아노과 1학기 학생회비 15% 삭감 ▲당사자 음악대학 학생상별위원회 회부 ▲당사자 사과문 게시 안 학생회비를 송금하지 않았다.

학생회비 송금을 미루던 A 씨는 3월 14일, 다음 날 전액 송금을 약속하며 과 학생회비 총액 290만 6965원 중 90만 6965원만을 입금했다. 그러나 다음날 송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A 씨와의 연락은 끊겼다.

추후 현 음대 학생회장과 연락이 닿은 A 씨는 학생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을 밝혔다. 이에 음대 학생회장단은 이를 ‘공공 횡령’으로 판단하고 15일 긴급 확대운영위원회 회를 열었다. 16일 진행된 음악대학 전체학생총회에서 ‘음악대학 피아노과 학생회비 감사TF 구성의 건’이 가결돼 감사 TF가 구성됐고 3월 18일, 19일, 21일에 걸쳐 감사가 진행됐다.

보고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5차례에 걸쳐 38만 9000원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해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A 씨가 계좌 한도제한을 인지하지 못한 것과 계좌 비밀번호, 카드, 통장을 분실하고 재발행한 경우를 포함하여 학부를 졸업하지 않고 프로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 학부를 졸업 후, 프로에 진출하여 학교의 위상을 높이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으며 대학 스포츠 인기 역시 과거와 비교해 매우 미약하다.

이러 박 회장은 “올해부터 과 학생회비는 음대 명의의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했으며 재정 담당자인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재정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재정 관리를 위해 예산안 작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절차를 잠정적인 이유에 대해 “이전에 90만 6965원만 입금한 상황에서 나머지 금액을 한 번에 보내지 못하면

재정 운영의 개선을 약속했다.



호텔관광대학 전경

(사진=김정민 기자)